Ⅱ. 2013학년도 1차 시험 해설

언어 영역

1. ①	2. ④	3. ②	4. ④	5. ②
6. ③	7. ③	8. ②	9. ①	10. ②
11. ⑤	12. ①	13. ⑤	14. ②	15. ①
16. ①	17. ③	18. ④	19. ①	20. ④
21. ⑤	22. ①	23. ③	24. ②	25. ①
26. ③	27. ③	28. ④	29. ⑤	30. ②
31. ③	32. ②	33. ⑤	34. ①	35. ④
36. ②	37. ③	38. ④	39. ①	40. ③
41. ⑤	42. ⑤	43. ⑤	44. ①	45. ④
46. ②	47. ②	48. ⑤	49. ③	50. ①

· 어휘

1.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 이해 정답 ①

어법에 어긋난 부분이 없고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①이다. '삼가 주시기'의 '삼가다'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꺼리는 마음으로 양(量)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다'라는 뜻인데, 일상생활에서 '삼가하다(삼가하여)'의 형태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문장의 구조가 병렬 관계이므로, '~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고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은 '~ 강한 바람과 높은 파고가 예상됩니다.'의 형태가 자연스럽다.

③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법무부에서는 ~'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므로,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는 '법무부는 ~'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다.

⑤ '~ 신사 참배 문제가 ~ 외교 현안 문제가 ~'와 같이 '문제가'라는 말이 중복되어 어색한 문장이다. '현안'이 '이전부터 의논하여 오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제나 의안'이라는 뜻이므로, '~ 외교 현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를 '~ 외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의 형태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한글 맞춤법 규정의 이해 및 구체적 적용 정답 ④

㉠~㉣의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를 모두 바르게 제시한 것은 ④이다. ㉠의 '이발(理髮)'은 한자음 '리(理)'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기 때문에 두음 법칙에 따라 '이'로 적은 것이다. ㉡의 '선량(善良)'은 한자음 '량(良)'이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자리에 오는 경우이므로 본음대로 적은 것이다. ㉢의 '분열(分裂)'은 한자음 '렬(裂)'이 'ㄴ' 받침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열'로 적은 것이다. ㉣의 '몰염치(沒廉恥)'는 한자음 '렴(廉)'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몰(沒)-'의 뒤에 붙기 때문에 두음 법칙에 따라 '염'으로 적은 것이다.

① ㉡의 '쌍용(雙龍)'이 적절하지 않다. 한자음 '룡(龍)'이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자리에 오는 경우이므로, '쌍룡(雙龍 : 한 쌍의 용)'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의 '수류탄(手榴彈)'의 경우, 두음 법칙에 따라 적은 한자음 자체가 없으므로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의 '선률(旋律)'이 적절하지 않다. 한자음 '률(律)'이 'ㄴ' 받침 뒤에 이어지고 있으므로 '율'로 적어야 한다.

③ ㉣의 '파렴치(破廉恥)'의 경우, 두음 법칙에 따라 적은 한자음 자체가 없으므로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의 '이동(移動)'의 경우, 두음 법칙에 따라 적은 한자음 자체가 없으므로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移'의 한자는 본래의 음이 '리'가 아니라 '이(옮기다)'이다.

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이해 및 적용 정답 ②

<보기>의 ㉠은 발음대로(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말하고, ㉡은 음운대로(음운을 밝혀) 적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 ㉡의 표기법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바르게 묶은 것은 ②이다. ㉠의 '백마'는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 [뱅마]로 발음되므로 'Baengma'로 적은 것이다. ㉡의 '묵호'는 [무코(Muko)]로 발음되지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음운대로 'ㅎ(h)'을 밝혀 적는다는 규칙 때문에 'Mukho'로 적은 것이다.

① ㉠의 '낙성대'는 [낙썽대]로 발음되기 때문에 발음대로 적는다면 'Naksseongdae'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발음이 아니라 음운대로 'Nakseongdae'로 적은 것이다.

③ ㉠의 '죽변'은 [죽뼌]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발음대로 적는다면 'Jukppyeon'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발음이 아니라 음운대로 'Jukbyeon'으로 적은 것이다. ㉡의 '신라'는 [실라]로 발음되기 때문에 음운이 아니라 발음대로 'Silla'로 적은 것이다.

④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적는데,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이는 발음을 반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 '벗꽃[벋꼳]'을 'Beotkkot'으로 표기하는 것은 음운이 아니라 발음대로 적은 것이다.

⑤ ㉡의 '대관령'은 [대괄령]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음운이 아니라 발음대로 'Daegwallyeong'으로 적은 것이다.

4. 단어의 사동형과 피동형 및 강조형의 이해 정답 ④

④에서 언급한 '걷다(여러 사람에게서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아들이다)'의 피동사는 '걷히다'이다. 따라서 ㉣에 쓰인 '걷혀야'가 올바른 말이고, '걷쳐야'는 어법에 맞지 않는다.

① ㉠의 '받치다'는 '건더기와 액체가 섞인 것을 체나 거르기 장치에 따라서 액체만을 따로 받아 내다'라는 뜻을 지닌 '밭다'에 '강조'의 뜻을 더하는 '-치-'가 붙은 말이다. 따라서 ㉠의 '받쳤다'는 어법에 맞는 말이다.

② '쏘거나 던지거나 한 물체가 어떤 물체에 닿다'라는 뜻을 지닌 '맞다'의 사동사는 '맞히다'이다. 따라서 ㉡의 '맞추면'은 '맞히면'으로 고쳐야 한다. '맞추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 등의 뜻을 지닌 말이다.

③ ㉢의 '붙이다'는 '겨루는 일 따위가 서로 어울려 시작되다'라는 뜻을 지닌 '붙다'의 사동사이다. 따라서 ㉢의 '붙이라고'는 어법에 맞는 말이다.

⑤ ㉤의 '뻗치다'는 '길이나 강, 산맥 따위의 긴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가다'라는 뜻을 지닌 '뻗다'에 '강조'의 뜻을 더하는 '-치-'가 붙은 말이다. 따라서 ㉤의 '뻗쳐'는 어법에 맞는 말이다.

5. 의미와 용법의 유사성에 따른 단어의 분류 정답 ②

ㄱ의 '깨다'는 '잠, 꿈 따위에서 벗어나다. 또는 벗어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고, ㄹ의 '깨다'는 '마취나 술기운 따위가 사라지고 온전한 정신 상태로 돌아오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다. 그러므로 ㄱ과 ㄹ의 '깨다'는 의미와 용법상 상호 유사성을 지닌 다의어 관계이다.

ㄴ의 '깨다'는 '일이나 상태 따위를 중간에서 어그러뜨리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고, ㄷ의 '깨다'는 '단단한 물체를 쳐서 조각이 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며, ㅁ의 '깨다'는 '어려운 장벽이나 기록 따위를 넘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다. 그러므로 ㄴ과 ㄷ과 ㅁ의 '깨다'는 의미와 용법상 상호 유사성을 지닌 다의어 관계이다.

한편, 각 단어들의 의미와 용법상으로 볼 때, 'ㄱ, ㄹ'의 '깨다'와 'ㄴ, ㄷ, ㅁ'의 '깨다'는 동음이의어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미와 용법의 상호 유사성을 기준으로 '깨다'를 분류한 결과가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6. 표준 발음법의 이해 및 구체적 적용 정답 ③

<보기>에 제시된 표준 발음법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단어들을 바르게 묶은 것은 ③이다. '홑이불'의 경우, 우선 첫 번째 음절인 '홑'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혿]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홑이불'은 '한 겹으로 된' 또는 '하나인, 혼자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홑-'과 명사 '이불'이 결합된 파생어인데,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이'인 경우이므로, 두 번째 음절인 '이'는 제29항의 규정에 따라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로 발음한다. 이 단계까지의 [혿니불]에서, [혿]의 경우 받침 'ㄷ'은 'ㄴ' 앞에서 [ㄴ]으로 발음한다는 제18항의 규정에 따라 [혼]으로 발음한다. 결국 '홑이불'은 <보기>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혼니불]로 발음한다.

'꽃잎'은 우선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꼳입]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꽃잎'은 합성어인데,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에 '이'가 들어 있으므로, 제29항의 규정에 따라 'ㄴ' 소리를 첨가하여 [꼳입]은 다시 [꼳닙]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받침 'ㄷ'은 'ㄴ' 앞에서 [ㄴ]으로 발음한다는 제18항의 규정에 따라 [꼳]은 [꼰]으로 발음한다. 결국 '꽃잎'은 <보기>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꼰닙]으로 발음한다.

①, ② '읊다[읍따]'는 합성어나 파생어가 아니므로 제29항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 '콩엿[콩녇]'은 제18항과 관련이 없으며, '막일[망닐]'은 제8항과는 관련이 없다.

④, ⑤ '색연필[생년필]'의 경우 제8항의 규정과 관련이 없다.

7. 높임법의 분류 및 실현 양상에 대한 이해 정답 ③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밑줄 친 단어에 적용된 높임법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③이다. 우선 ㄷ의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는 '할아버지'인데, '계시던'은 '할아버지'를 높이는 말이므로 주체높임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계시다'는 '있다'의 높임말이므로, 문장의 종결 표현이나 선어말어미에 의해 높임법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특수한 어휘에 의해 높임법이 실현된 것이다.

① ㄱ의 '피곤하신지'는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말이므로, 주체높임법에 해당한다.

② ㄴ의 '여쭈워'는 서술의 객체(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한 말이므로, 객체높임법에 해당한다.

④ ㄹ의 '퇴근하신'은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말이므로, 주체높임법에 해당한다.

⑤ ㅁ의 '돌아가신'은 주체가 '할머니'이므로 주체높임법에 해당하고, '돌아가시다'는 '죽다'의 높임말이므로 특수한 어휘를 통해 높임법을 실현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8.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의 이해 및 적용 정답 ②

②의 첫 번째 문장에서, '동생은 ~'의 '은'은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 붙어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에 속한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의 '~ 여자와 다르다.'에서 '와'는 접속조사가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

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부사격)에 해당한다.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① 으로 :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격조사(부사격) / 조차 :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랑 :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

③ 아 : 손아랫사람이나 짐승 따위를 부를 때 쓰는 격조사 / 요 :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하고 :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

④ 이 :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否定)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문법적으로는 앞말이 보어임을 나타냄. / 까지 :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과 :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

⑤ 에서 :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 만 :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 와 :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

기

9. 조건을 모두 반영한 창의적 표현 이해 정답 ①

<보기>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반영한 문구는 ①이다. 우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재능 기부와 일반 기부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 타인이 진실로 원하는 것'에서,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하는 대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능 기부'를 '단비'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재능 기부와 일반 기부의 차이점을 잘 드러내지 못했으며,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재능 기부와 일반 기부의 차이점을 드러낸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대구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대구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대구적 표현,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10. 개요 수정 및 보완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학교 체험 활동과의 연계성 강화'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언급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 체험 활동과의 연계성 강화'라는 하위 항목은 상위 항목인 ㉡의 '방과후 독서 활동의 실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① <보기>는 '방과후 독서 활동 활성화'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의 '학생 여가 활동의 필요성 증대'는 개요의 취지와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방과후 독서 활동의 필요성 증대'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Ⅱ'의 하위 항목에 '방과후 독서 활동 시간의 부실한 운영'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 '방과후 독서 활동 시간 및 관련 예산 부족'에서 '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Ⅱ'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④ ㉣에는 'Ⅲ'의 하위 항목인 '다. 방과후 독서 활동을 지도할 만한 전문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활성화 방안이 빠져 있다. 따라서 글의 완결성을 고려한다면, ㉣에 '방과후 독서 활동을 지도할 만한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방과후 독서 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글 전체의 흐름이 학생의 인식 측면보다는 학교의 지원 측면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은 '방과후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지원 촉구'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비문학 – 기타

[11~14] 지문 해제

윤선도의 작품 「무궁화」에 드러난 관점 및 사상

고산 윤선도의 작품인 「무궁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꽃인 '무궁화'에 대한 인식(관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윤선도의 사상에 대해 언급한 글이다. 무궁화는 오늘 피었다가 오늘 지는데, 윤선도는 이에 대해 하나의 꽃으로 두 해님에게 인사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무궁화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꽃이 아니라 순수하고 충직한 마음을 지닌 꽃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이 덕무가 일편단심의 충성스런 마음을 상징하는 꽃으로 칭찬한 해바라기에 대해, 윤선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해바라기는 매일매일 떠오르는 다른 태양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지조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태양(해님)을 임금이라고 생각해 보면, 윤선도가 말하려는 뜻은 한 분의 임금만을 섬기기 위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무궁화가 진정으로 충성스런 꽃이라는 것이다. 즉, 무궁화는 하루 만에 지지만 매운 정신을 지닌 꽃이고, 해바라기는 지조도 없고 아첨만 잘하는 간신배나 소인배를 나타내는 꽃인 것이다.

윤선도의 「무궁화」는 귀양 가서 지은 작품이다. 윤선도는 조정의 벼슬아치들에게 자신은 무궁화와 같은 신하라는 점을 내세우며, 그들에 대해서는 해바라기 같은 간신배라고 비꼬았던 것이다. 이처럼 윤선도의 작품 「무궁화」 속에 보이는 무궁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궁화와는 다른 꽃처럼 느껴진다. 결국 윤선도는 무궁화에 대해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궁화」가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었다.

11. 구체적 정보의 분석적 이해 및 확인 정답 ⑤

지문에서 '피고 지고 또 피는 그 은근과 끈기의 정신을 기려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꽃을 무궁화'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고, '나라꽃으로 정해 아끼고 사랑해 왔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무궁화가 절개를 지키는 꽃이라 해서 나라꽃으로 정했다는 ⑤는 지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참고로, 무궁화가 절개를 지키는 꽃이라고 본 것은 윤선도이다.

① 윤선도는, 무궁화는 한 태양(임금)만을 섬기기 위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기 때문에 충성스런 꽃인데, 해바라기는 매일 떠오르는 다른 태양(임금)에게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지조가 없다고 인식한다. 지문의 후반부 내용을 고려하면, 윤선도는 그러한 무궁화와 해바라기의 대비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② 지문의 중간 부분에서, 해바라기는 언제나 태양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임금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나타내는 꽃으로 칭찬받아 왔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과 관련된 이덕무의 글을 제시하였다.

③ 무궁화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인식을 소개하고 나서, 중국에서는 가진 것도 없이 뽐내는 소인배를 가리키는 뜻으로도 쓰였다고 언급하였다.

④ 중국 사람들은 무궁화에 대해 꽃의 화려함이 하루밖에 못 간다고 '하루영화꽃'이라고 불렀다. 윤선도는 무궁화를 '일일화(一日花)'라고 불렀는데, 이 말도 하루밖에 못 가는 꽃이라는 뜻이다.

12. 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 ①

지문에서는 고산 윤선도의 「무궁화」라는 작품을 토대로 하여, 중국 사람들과 달리 생각한 윤선도의 무궁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해바라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대비되는 윤선도의 관점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즉, 특정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대비하면서 윤선도의 처지와 사상에 대해 언급한 후, 「무궁화」라는 시가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작가의 인식 및 관점의 독창성 측면으로 평가하고 있다.

13. 글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⑤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 전개 양상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해 내는 문제이다. 지문의 전반부에서는 사물을 새롭게 보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시는 시인이 사물과 새롭게 만나 느낀 감동을 적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지문의 중반부에서는 무궁화에 대한 중국 사람들과 윤선도의 관점의 차이, 해바라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윤선도의 관점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문의 후반부에서는 윤선도의 처지와 사상에 대해 언급한 다음, 윤선도의 「무궁화」라는 시가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문은 사물에 대한 관점의 독창성을 높이 평가한 글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자연물에 대해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양상이 드러날 뿐, 자연물에 대한 평가가 변하는 양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사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서술한 내용은 있으나, 사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온 과정을 서술한 내용은 없다.

③, ④ 고산 윤선도의 「무궁화」라는 작품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 있지만, 지문의 핵심 취지는 윤선도가 지닌 관점의 독창성에 맞추어져 있는 글이다.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의 종류(③)나 작품에 대한 평가가 시대마다 변하는 양상(④)에 대해 다룬 글이 아니다.

14. 단어의 쓰임 이해를 통한 유사성 파악 정답 ②

㉠의 '다른'은 관형사로서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이와 쓰임이 같은 것은 ②의 '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의 '다른'이다.

①, ③, ④, ⑤에 들어 있는 '다른'은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형(관형어)으로서 '비교가 되는 대상들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말이다.

— 사회

[15~18] 지문 해제

자유주의 이론과 롤즈의 수정 자유주의 이론

자유주의 이론의 사상적 기반과 그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수정 자유주의 이론 중 하나인 롤즈의 사회 정의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자유주의는 평등과 정의의 문제를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똑같이 보장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를 주장했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그 이론적 배경인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사상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부르주아의 독점 권력이라는 정치적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첨예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했고, 이러한 권력은 노동자 계급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할 정도로 침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수정 자본주의 이론이 등장했는데, 롤즈의 사회 정의론도 그 중의 하나이다.

롤즈는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개인은 전체의 자유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각 개인의 이러한 자유는 전체의 자유와 평등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으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지위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통과한 불평등을 정당하다고 본 반면, 수정 자유주의자들은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통과한 사회적 불평등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롤즈와 같은 수정 자본주의자들은 복지 국가적 개입에 의한 사회 정의와 평등의 실현을 옹호한다.

롤즈의 사상이 전반적으로 복지를 옹호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롤즈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긍정하는 입장이다. 단지 그 불평등한 상태가 최초의 평등한 상태보다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나아졌음을 보장할 수 있을 때라고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결국 차등 원리는 엄밀히 말해서 재분배가 아니라 원래적 분배이다.

15. 특정 이론의 전제 조건에 대한 이해 정답 ①

㉠이 제시된 문단의 바로 다음 문단에, 롤즈는 "~ 정의는 사회 제도의 첫째 덕목이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정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의 기본 구조와 제도를 규제하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문의 넷째 문단에 롤즈가 생각한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개인은 전체의 자유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각 개인의 이러한 자유는 전체의 자유와 평등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으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개인적인 자유는 사회 전체의 자유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평등이나 불평등의 문제도 사회적 정의의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롤즈의 사회 정의론에 전제된 조건으로는 '자유와 평등도 중요하지만 정의보다는 하위 개념이다.'라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②, ③ 사회 전체의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은 어느 한쪽을 배제하기 마련이라거나 양자를 배제한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자유와 평등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측면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⑤ 자유와 평등의 선후 관계에 관한 이론으로 보기 어렵다.

16. 특정 이론의 사상적 기반의 핵심 파악 정답 ①

자유주의(㉡) 이론의 핵심은, 첫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는 '자유주의는 평등과 정의의 문제를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똑같이 보장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를 주장했다.'라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즉,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똑같이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최소한의 제약으로 최대한의 자유를 추구한다.'라는 ①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이론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부르주아의 독점 권력이라는 정치적 불평등의 심화, 첨예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이론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복지 국가의 노선(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을 수용하는 수정 자본주의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② 최소한의 정부를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만인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유주의 이론으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지 국가 노선을 수용하는 수정 자유주의 이론이 등장했다.

③, ④ 지문에서는 자유주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삶의 양식,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⑤ 첫째 문단에서, 경쟁적 산업 자본주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이어져 노동자 계급의 자유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언급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7. 견해의 이해를 통한 관련 상황에의 적용 정답 ③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롤즈가 제시한 차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지위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보기 2>의 ㄴ에서 '집 밖으로 나가 바깥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불평등(빵 조각을 선택하는 순서)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만 한다.'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연결된다. 따라서 ㄴ은 롤즈의 견해와 부합하는 설명이다.

그리고 지문의 다섯째 문단에서 '차등 원칙에 따르면,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통과한 사회적 불평등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성과를 오로지 자기만이 독점해서는 안 되고, 최소 수혜자의 이득을 고려해서 재분배해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을 적용할 때, <보기 2>의 ㄷ에서 '가장 작은 조각을 받게 되는 이'는 최소 수혜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조각을 받게 되는 이가 나누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은, 최소 수혜자의 이득을 고려해서 재분배하는 것과 연결된다. 따라서 ㄷ도 롤즈의 견해와 부합하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ㄱ. 마지막 문단의 '롤즈의 사상이 전반적으로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 체제와 같은 복지를 옹호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롤즈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긍정하는 입장이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ㄹ. 빵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작은 조각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집 밖으로 나가 바깥의 상황을 자세히(오랫동안)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18. 견해를 뒷받침하는 논거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지문의 셋째 문단에서, 롤즈가 말한 사회 차원의 정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가는 모든 개인의 평등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면서, 동시에 정당화될 수 없는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즉, '사회적 기본 가치를 분배하는 데에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만을 인정함으로써 최대한의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사회의 기본 구조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다섯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했듯이 '복지 국가적 개입에 의한 사회 정의와 평등의 실현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롤즈의 견해를 종합할 때, 롤즈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는 '개인의 자유와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로 인해 생긴 불평등을 상쇄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배분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① 다섯째 문단의 '최소 수혜자의 이득을 고려해서 재분배해야만 한다.'라는 내용과 어긋나는 논거이다.

② 셋째 문단에서 언급한 '정의란 ~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서 바람직한 사회의 기본 구조와 제도를 규제하는 원칙'이라는 내용과 어긋나는 논거이다.

③ 다섯째 문단에서 '가족, 인종, 종교, 성, 사회적 배경 등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동일한 능력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롤즈가 복지를 옹호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긍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모든 이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과는 다르다.

⑤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한다는 점과 연결되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롤즈는 '부의 공정한 분배'를 주장했다기보다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고려해서 재분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 현대시

[19~23] 작품 해제

(가) 서정주, 「춘향유문」

죽음을 앞둔 춘향이가 감옥에서 유서 형식으로 노래한 작품으로, 도련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물 → 구름 → 소나기'와 같이 불교적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도련님'에 대한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 박목월, 「이별가」

죽음을 소재로 하여 삶과 죽음 및 인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와 청자가 등장하고 반복과 점층을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경상도 방언의 사용에서 소박한 정감이 우러나고 있다. 특히, '뭐락카노'라는 시어로 제시되는 삶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오냐'라는 시어로 제시되는 수긍의 상황이 작품 전체의 시상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다) 송수권, 「산문(山門)에 기대어」

이 작품은 죽은 누이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독백의 성격을 띤다. 시적 화자는 죽은 누이가 그리워 누이를 반복하여 부르고 있는데, 죽은 누이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죽은 누이와 정신적인 만남을 이루고자 하는 불교적 윤회의 세계관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될 누이를 위해 한 잔은 비워 두면서, 죽은 누이가 '못물 속'에 비쳐 온다고 인식하고 있다.

19. 현대시 세 작품의 공통적 속성 파악 정답 ①

(가)는 죽음을 앞둔 춘향이가 유서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한 작품인데, 죽은 뒤에도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여요.'라고 노래하면서 '도련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대상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상황에서 '이승 아니믄 저승에서라도 /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라고 노래하면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다)는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면서 죽은 누이와 정신적인 만남을 이루고자 하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가)~(다)의 화자는 모두 대상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 작품의 공통점으로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② (나)의 경우 이별한 대상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재회를 확신하는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가)는 죽음을 앞둔 춘향이가 유서 형식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시적 화자가 죽음의 주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⑤ 대상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나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작품들이다.

20. 시어의 함축적 의미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④

(다)의 '돌'은 '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죽은 누이의 이미지가 투영된 시어이다. (가)의 시적 화자는 자신이 죽은 뒤에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결국 도련님의 곁이 아니겠느냐고 노래하면서 생사를 초월한 사랑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구름이 '소나기'가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영원한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의 '물', ⓓ의 '구름', ⓔ의 '소나기'는 죽은 뒤에 도련님의 곁에 존재하는 춘향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의 '돌'이 지닌 함축적 의미(죽은 대상의 이미지)와 유사한 것은 ⓑ, ⓓ, ⓔ이다.

ⓐ '나무'는 도련님과 만나던 지난날의 행복과 사랑을 회상하는 시어로 이해할 수 있다.

ⓒ '하늘'은 죽은 뒤의 세계를 의미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21. 작품에 드러난 시적 공간에 대한 이해 정답 ⑤

(나)에 형상화된 '강기슭'의 '강'은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 혹은 간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의 '저편'이 죽은 시적 대상이 떠나는 '저승'으로 드러나 있으므로, ㉠의 '강'은 화자와 대상과의 단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의 화자는 '강물'에 비친 '기러기'의 모습에서 죽은 누이를 떠올리고,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 두면서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 그렇게 만나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의 '강물'은 화자와 대상과의 만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22. 작품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이해 정답 ①

(나)는 '뭐락카노', '하직(을) 말자', '오냐', '이승 아니믄 저승에서라도' 등의 시어를 반복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어의 반복은 화자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이다.

② 역설적인 수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한 작품이 아니다.

③ 수평적 공간과 수직적 공간을 교차시켜 극한 상황을 드러낸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 '동아밧줄'은 죽은 시적 대상과 시적 화자 사이의 이승에서의 인연을 암시하는 시어라고 할 수 있다.

④ 시선이 대체로 '저편 강기슭'을 향하고 있다.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이동시켜 대상을 초점화했다고 볼 수 없다.

⑤ 감각의 전이를 통해 시적 대상을 묘사한 부분이 없다.

23. 작품에 대한 이해 및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다)의 마지막 연에서 '이 못물 속에 비쳐' 오는 것은, 죽은 누이를 암시하는 '가을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 눈썹 두어 낱'이다. 즉, 죽은 누이의 모습이 새로운 생성을 상징하는 '못물'에 비쳐 오는 양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불교적 윤회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죽은 누이와의 만남에 대한 믿음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못물 속에 비쳐 옴을'이라는 시구를 화자의 한의 응어리의 측면으로 이해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① '누이야 지금도 살어서 보는가 / ~ /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 ~ / 그렇게 만나는 것을', 그리고 '누이야 아는가 / ~ / 지금 이 못물 속에 비쳐 옴을' 등에서 서술어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목적어 부분을 나중에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목적어와 서술어를 도치시킴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② '눈물'을 '돌로 눌러 죽이고'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죽은 누이로 인한 슬픔을 삭이면서 인내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ㅡ 과학

[24~27] 지문 해제

과학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는 과정

대부분의 과학에서 과학적 탐구 활동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 내에서 수행된다. 쿤에 따르면, 정상과학이 지속되는 기간까지는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분야의 근본 원리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하나의 패러다임이 약간의 반대 증거들과 충돌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패러다임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변칙 사례들의 수가 증가하여 많이 축적될 때, 일부 과학자들은 기존 패러다임의 핵심 가정들 중의 어떤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며, 그 대안까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일은 세계를 기존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곧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과학 공동체가 점차로 감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발생하고, 과학 공동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하게 된다면 혁명이나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한다.

24. 정보의 이해를 통한 글의 중심 화제 파악 정답 ②

지문의 전반부에서는 쿤의 입장을 토대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하나의 반증 사례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자신들의 이론들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문의 후반부에서는, 과학 공동체가 기존의 패러다임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구하게 되고,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함으로써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문은 과학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 글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패러다임'은 과학적 이론에 대응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글의 중심 화제로는 ②의 '새로운 과학 이론의 정립 과정'이 가장 적절하다.

25. 내용 전개 양상에 따른 글의 성격 파악 정답 ①

지문은 쿤의 견해(이론)를 바탕으로 과학 분야에서 과학적 탐구 활동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지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과학 혁명,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하는 과정은 '과학적 탐구 활동과 관련하여 이미 확립되어 있는 패러다임 →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변칙 사례들의 증가 → 기존 패러다임의 위기 → 새로운 패러다임의 탐구 → 새로운 패러다임의 채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글에 대한 설명으로는 '특정한 이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② 쿤의 관점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상반된 관점을 절충적으로 종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구체적 현상에 들어 있는 원리를 밝힌 글이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원리를 설명한 글이다.

④ 가설(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을 검증한 글이 아니다.

⑤ 변칙 사례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이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거나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언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그 사례 속에 내재된) 일반 원리를 도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6. 정보의 이해를 통한 관점의 관련성 파악 정답 ③

첫째 문단에서 쿤이 말하는 '정상과학'에 대해 언급한 다음, 과학적 탐구 활동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 내에서 수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상과학에서 어떤 문제들(수수께끼)을 푸는 데 사용되는 규칙들은 매우 엄밀하며 (이미 확립되어 있는) 패러다임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상과학은 비정상 과학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③은 쿤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① 둘째 문단의 '쿤에 따르면 인간이 창조하는 문화 현상 가운데 하나인 과학을 ~'이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첫째 문단의 '과학적 탐구 활동에서는 많은 새로운 관찰들을 수집하고 그 수집된 관찰들을 이미 받아들인 이론 내에서 적합하게 만들고, 그 패러다임으로 소수의 문제들을 풀려고 노력함으로써 패러다임을 공고히 하고 확장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둘째 문단에서 쿤의 입장에 대해 언급한 '과학을 실천하는 활동들 대부분이 보수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상과학이 지속되는 기간까지는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분야의 근본적인 원리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첫째 문단에서 쿤이 말하는 '정상과학'에 대해 언급한 후 '과학적 탐구 활동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 내에서 수행'된다고 설명했다.

27. 어구의 의미와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정답 ③

마지막 문단의 내용으로 볼 때, ㉠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해당 분야의 변칙 사례들이 기존 패러다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변칙 사례들이 실천적으로 특별히 중요성을 가지는 기존 패러다임의 적용을 방해하거나, 기존의 패러다임이 오랜 기간 동안 변칙 사례들 때문에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 과학 공동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하는 (과학)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③의 '이념(理念)의 전향(轉向)'이다.

— 고전소설

[28~32] 작품 해제

박지원,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

연암 박지원의 한문 소설로, 바람직한 교우(交友)의 도(道)와 직업적 차별 의식의 타파라는 주제 의식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대학자인 선귤자는 분뇨를 치우는 일을 하는 엄 행수와 벗으로 지내며 그를 예덕선생이라고 부른다. 선귤자의 제자 자목은 스승에게 사대부와 벗하지 않고 비천한 엄 행수를 벗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문하에서 떠나기를 청한다. 이에 선귤자는 이해(利害)로 사귀는 것과 아첨으로 사귀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마음과 덕을 중시하는 도의의 사귐을 강조한다. 엄 행수는 어리석은 듯이 보이고 분뇨 치우는 일을 하지만, 그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으로부터 욕먹는 일도 없는 사람이다.

이처럼 타고난 분수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엄 행수야말로 지저분함 속에 덕행을 파묻고 세상을 떠나 숨은 사람이다. 그의 하는 일은 불결하지만 그 방법은 지극히 향기로우며, 그가 처한 곳은 더러우나 의를 지킴은 꿋꿋하니 엄 행수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랴. 이에 그를 예덕선생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28. 고전소설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④

제시된 장면을 보면, 자목이 스승인 선귤자에서 따져 묻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가장 열악한 곳에 살면서 남들이 치욕스럽게 여기는 일을 하는 엄 행수의 덕을 칭송하여 선생이라 부르는 동시에, 그와 사귐을 맺고 벗이 되려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문하에서 떠나겠다고 말한다.

이에 선귤자는 자목에게 벗에 관해 이야기를 해 주며 "이렇게 벗을 사귀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자, 자목이 다시 "이는 선생님께서 시정잡배나 하인 놈들이 하는 짓거리를 가지고 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선귤자는 바람직한 교우(交友)의 도를 말하면서, 엄 행수의 행실과 덕에 대해 칭송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상반된 의견을 가진 선귤자와 자목 간의 문답 과정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서술상 특징으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① 엄 행수의 외양과 행동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그를 희화화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체제를 비판하거나 제도의 모순을 지적한 작품이 아니라,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③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엄 행수의 행실과 덕을 칭송한 것이지,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인물을 예찬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29. 내용의 이해를 통한 인물의 성격 파악 정답 ⑤

엄 행수의 성격이나 인물됨은 주로 선귤자의 말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엄 행수가 인정이 있다(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② '그는 밥을 먹을 때에는 든든히 먹고, 길을 걸을 때에는 조심조심 걷고, 졸음이 오면 쿨쿨 자고, 웃을 때에는 껄껄 웃고, 평소 지낼 때에는 바보처럼 보인다네.'라는 내용에서, 순박하고 소탈한 성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그는 손바닥에 침을 뱉고 가래를 휘두르면서, 새가 모이를 쪼아 먹듯 꾸부정히 허리를 구부려 일에 열중할 뿐이야.'라는 내용에서, 부지런한 성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④ '아무리 화려한 미관이라도 마음에 끌리는 법이 없고, ~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지.'에서, 욕심이 없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30. 내용에 담긴 표현 의도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②

㉡을 통해 표현하려는 의미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예찬을 받고 싶은 생각에서 마음에도 없이 자신의 허물에 관해 듣고 싶은 체하면서 주의를 끈다는 것이다. 결국 ㉡은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① ㉠은 사대부들 중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아무나 제자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바로 앞의 내용으로 볼 때, ㉢은 상대방이 잘한다고 자부하는 것을 언급할 때의 방법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등을 토닥일 때에는 겨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어루만질 때에는 목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므로, 이는 결국 적절하게 선을 지키는 행동의 중요성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1. 인물의 언행에 맞는 한자 성어의 적용 정답 ③

제시된 장면에 드러난 선귤자의 말을 고려할 때, 엄 행수는 진정한 벗으로 사귈 만한 행실과 덕을 갖춘 인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자목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스승인 선귤자에게, 마을의 비천한 일을 하는 엄 행수의 덕을 칭송하여 선생으로 부르면서 벗으로 사귀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문하에서 떠나겠다고 말한다. 이러한 자목의 언행을 표현하는 말로는 ③의 '적반하장(賊反荷杖)'이 가장 적절하다. 이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다.

① 허장성세(虛張聲勢) :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
② 과대망상(誇大妄想) : 사실보다 과장하여 터무니없는 헛된 생각을 하는 증상
④ 면종복배(面從腹背) :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⑤ 부화뇌동(附和雷同) :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32. 단어의 구조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②

ⓐ의 '살얼음'은, 우선 '온전하지 못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살-'과 명사인 '얼음'이 결합하여 형성된 말이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얼음'은 '얼다'라는 동사의 어간 '얼-'과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형성된 말이다. 결국 ⓐ의 구조는 {살-(접두사) + [얼-(동사의 어간) + -음(접미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와 단어의 구조가 동일한 것은 ②의 '선잠'이다. '선잠'은 '서툰' 또는 '충분치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선-'과 명사인 '잠'이 결합하여 형성된 말이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잠'은 '자다'라는 동사의 어간 '자-'와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ㅁ'이 결합하여 형성된 말이다. 결국 '선잠'의 구조는 {선-(접두사) + [자-(동사의 어간) + -ㅁ(접미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군침 : [군-('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침(명사)]

③ 맨주먹 : [맨-('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주먹(명사)]
④ 시누이 : [시-('남편의'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 누이(명사)]
⑤ 풋사랑 : [풋-('미숙한', '깊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사랑(명사)]

– 인문

[33~36] 지문 해제

일제 강점기 한국 사학의 전개 유형과 개별적 특징

민족주의 사학, 사회 경제 사학, 실증 사학이라는 세 학파의 대립과 종합을 통한 한국 사관의 모색과 정립으로 특징지어지는 일제 강점기 한국 사학의 전개 유형과 그 개별적 특징에 대해 서술한 글이다.

민족주의 사학은 비록 국가는 외형을 잃었더라도 정신만 살아 있으면 민족은 살아 있는 것이며, 따라서 언제고 반드시 독립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관이다. 박은식의 신(神) 혹은 혼(魂) 사상, 정인보의 얼 사상, 신채호의 낭가 사상, 최남선의 조선 정신, 문일평의 조선심(朝鮮心) 등이 이 사학에 속한다.

사회 경제 사학은 사회사적 측면에서는 양반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하고, 경제사적인 측면에서는 농업사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양자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백남운인데. 그는 일원적 역사 법칙이라고 생각한 유물사관의 공식에 의해서 한국사의 발전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유물 사관은 물질적인 생산력의 발전에 근거를 둔 사회적인 면에서 한국사를 이해하였다. 사회적인 면에서도 특히 계급의 존재를 중요시해서, 각 사회 발전 단계를 계급의 대립 관계 측면으로 파악하였다.

실증 사학은 구체적인 사실의 구명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려 하였다.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실증 사학자들은 개별적인 사실의 추구에 몰두하였고, 개별적인 사실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성의 이론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실증 사학의 등장으로 민족주의 사학이나 사회 경제 사학이 자칫 소홀하기 쉬웠던 역사의 구체적 연구에 대한 방법의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33. 구체적 정보의 분석적 이해 및 확인 정답 ⑤

지문의 넷째 문단에서 최남선은 조선 정신을 내세웠다고 언급한 다음 '그는 이 조선 정신을 정치적인 혹은 대외적인 면에서보다도 문화적인 면에서 더욱 찾아보려고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단에서 '문일평의 조선심(朝鮮心)은 한국 민족에게 고유한 것이라는 점, 그러면서도 추상적인 정신으로서 한국 문화를 형성하는 근원이라는 점 등에서 조선 정신과 비슷하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문일평의 조선심은 정신이 문화를 형성하는 근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최남선의 조선 정신과 통한다.'라는 ⑤가 적절하다.

① 첫째 문단에서, 일제 강점기 한국 사학은 민족주의 사학, 사회 경제 사학, 실증 사학의 대립과 종합을 통한 한국 사관의 모색과 정립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세 사학이 서로에 대해 배타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② 일곱째 문단에서, 백남운은 유물 사관의 공식을 한국사에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통해 세계사적인 발전 과정에 비추어 한국사를 체계화하려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고유한 사상 체계를 중요시한 것은 신채호이다.
③ 넷째 문단의 '조선 정신은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볼 때, 한국의 역사와 자연에 내재된 정신은 최남선의 조선 정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④ 단군 신화의 연구에 큰 관심을 쏟은 사람은 최남선이며, 세종을 조선 사상의 대표자로 본 사람은 문일평이다.

34. 특정 입장의 이해 및 강화하는 주장 파악 정답 ①

㉠의 '사회 경제 사학'을 체계화한 사람은 백남운인데, 그는 일원적 역사 법칙이라고 생각한 유물 사관의 공식에 의해서 한국사의 발전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여덟째 문단에서, 유물 사관은 물질적인 생산력의 발전에 근거를 둔 사회적인 면에서 한국사를 이해하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계의 본질은 물질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세계와 그 법칙성을 인식할 수 있다는 ㄱ은, 유물 사관과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 입장을 강화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유물 사관은 사회적인 면에서도 특히 계급의 존재를 중요시해서, 그들이 설정한 각 사회 발전 단계는 각기 독특한 계급의 대립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역사상 각 시기에 지배적 관념은 항상 지배 계급의 관념이었다고 언급하면서, 구(舊)체제 내부에서 새로운 사회의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낡은 관념의 해체가 낡은 존재 조건의 해체와 보조를 맞춰 진행된다는 ㄴ도 ㉠의 입장을 강화하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ㄷ. 역사는 사건사, 국면사, 구조사의 삼차원 입체 구조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은 일원론적인 역사 법칙과 관련이 있으므로, 서로 관련성이 없다.
ㄹ. 성장하는 문명에서 가장 중대한 도전은 문명 자체가 만들어 내는 문제(내적 도전)라고 말하면서, 문명이 성장할수록 도전의 성질이 물질적인 데서 도덕적, 정신적인 데로 차원이 높아진다고 언급했다. ㉠은 물질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중시하므로, 서로 관련성이 없다.

35. 내용 이해를 통한 반응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사회 경제 사학을 체계화한 백남운은 일원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서 한국사의 발전을 이해하려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회 경제 사학은 하나의 역사 법칙에 입각해서 한국사를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한편 민족주의 사학은 정신 사관에 기초를 둔 것으로, 한국사 발전의 근본을 정신적인 것에서 찾고, 그 근본이 되는 힘을 민족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족주의 사학에 대해 다양한 역사 법칙에 입각해서 한국사를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① 여섯째 문단에서, 민족주의 사학은 민족을 마치 개인과 같은 단일체로 생각하여 민족 구성원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 근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여겼다고 밝혔다.

② 셋째 문단의 '그(신채호)는 한국사를 표면적으로는 한국 민족과 이(異)민족의 투쟁사로, 내면적으로는 고유 사상과 외래 사상의 투쟁사로 파악한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이다.

③ 일곱째 문단에서 사회 경제 사학과 관련하여 언급한 '이 공식(유물 사관의 공식)을 한국사에 그대로 적용하여'라는 내용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반응이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진단학회에 대해 언급한 '개별적인 사실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성의 이론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36. 한자어의 사전적 의미에 대한 이해 정답 ②

ⓑ의 '파악(把握)'은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앎'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의 사전적 의미를 '사물의 본질, 원인 따위를 깊이 연구하여 밝힘'으로 제시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 고전시가

[37~41] 작품 해제

(가) 정서, 「정과정(鄭瓜亭)」

고려 의종 때의 문신인 정서가 참소를 받아 유배될 때 임금이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래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억울함과 결백을 호소하기 위해 지은 노래이다. 화자는 자신에 대한 참소가 거짓이라고 호소하면서, 임금을 향해 자신에게 다시 사랑을 베풀 것을 애원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심정과 비슷한 '접동새'를 등장시키고 있으며, 자연물인 '잔월효성(殘月曉星)'에 기대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유배 문학과 충신연주지사(忠信戀主之詞)의 원류로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나) 정훈, 「탄궁가(嘆窮歌)」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드러내면서, 당대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표현의 묘미를 살린 가사 작품이다. 화자는 빈곤한 처지에 대해 한탄을 하다가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결국에는 체념과 수용의 태도를 보인다. 특히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가난을 의인화하여 대화하는 양상으로 표현하면서 가난을 자신의 분수로 여기며 수용하는 태도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다) 이규보, 「시벽(詩癖)」

'시벽(詩癖)', 즉 시를 짓지 않고는 못 배기는 병을 제재로 한 한시 작품이다. 화자는 나이가 이미 칠십을 넘었고, 지위도 정승까지 올랐다. 그러니 시 짓는 일을 그만둘 만도 하건만, '시마(詩魔)'가 아침저녁으로 따라다니며 놓아 주지 않아 시를 짓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한다고 노래한다. 화자는 시를 짓게 하는 것을 '시마(詩魔)'가 괴롭히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결국 시 짓기가 병이 될 정도로 시 짓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성향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7. 고전시가 세 작품의 공통적 속성 이해 정답 ③

(가)의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여 울면서 자신에게는 잘못이나 허물이 없으니 다시 사랑을 베풀 것을 애원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가난에 대해 한탄하다가 나중에는 체념과 수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의 화자는 표면적으로 볼 때, 칠십이 넘어 이제는 시 짓는 일을 그만둘 만도 하건만 '시마(詩魔)'란 놈이 따라다니며 놓아 주지 않기 때문에 괴롭게 읊조린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가)~(다)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화자의 태도를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해 고민하는 양상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① 고통스런 현실의 면모가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방황하는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경우 정반부에서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후반부에서는 가난을 자신의 분수로 인식하면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의 경우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와는 거리가 먼 작품이다.

④, ⑤ (다)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38. 고전시가 두 작품의 표현상 공통점 파악 정답 ④

(가)의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며 우는 것이 '접동새'와 비슷하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다)의 화자는 이제는 시 짓는 일에서 벗어날 만하건만 그만두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귀뚜

라미처럼 읊조리고 올빼미인 양 노래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다)는 모두 화자가 자신과 동일하다고 느끼는 소재를 활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표현상의 공통점으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① (가)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② (가)는 감각적인 언어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린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나)의 후반부에서 가난을 의인화하여 그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가)에서는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 아니라, 임에게 말을 건네는 (하소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⑤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일 뿐, (나)와는 거리가 멀다.

39. 두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 비교 · 대비 정답 ①

(나)의 화자는 가난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한탄하면서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후반부에서는 가난을 자신의 분수로 인식하면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의 화자는 나이가 칠십이 넘어 이제는 시 짓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시마(詩魔)'가 따라다니며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를 짓는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러다가 후반부에서는 대단한 시를 지어서 천 년 뒤에 남길 것도 없지만 손바닥 부비며 웃다가 다시 읊조려 본다고 언급하고,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려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고 노래하면서 시 짓는 일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나)의 화자는 가난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시 짓는 일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①이 가장 적절하다.

② (나)와 (다)의 화자 모두 대상과 자신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인식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낸 작품들로 보기 어렵다.
③ (나)와 (다)의 화자 모두 처음의 태도가 나중에 변화하는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화자는 시적 대상인 가난을 자신의 분수로 인식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거리를 두고 대상을 관찰하는 태도의 차원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⑤ (다)의 시적 대상은 시를 짓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자는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렸다고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을 측은하게 여기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

40. 자료의 적용을 통한 작품의 속성 이해 정답 ③

<보기>는 조선 후기의 가사 문학 분야에서 나타난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관념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일상의 경험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개인적인 현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작품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 중 개인적인 현실의 상황이 사실적으로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은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죽을 쑤어 국물은 상전인 내가 먹고 건더기는 건져 종을 주었는데도 / 종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콧방귀를 끼는구나'라는 의미이다.

㉠ 삼십 일에 아홉 끼니를 얻거나 못 얻거나 / 십 년 동안 한 개의 갓을 쓰거나 못 쓰거나
㉡ 안연의 곳간이 비었다고 한들 나같이 비었으며 / 원헌의 가난이 심하다고 한들 나같이 심할까
㉣ 죽거나 살거나 헤어질 줄이 없었거늘 / 어디 가서 누구의 말을 듣고 가라고 말하는가
㉤ 너 혼자 신의가 있어 나를 버리지 않으니 / 일부러 피하여서 잔꾀로 헤어지겠느냐

41. 주제를 구현하는 발상과 표현 방법 이해 정답 ⑤

(다)의 화자는 전반부에서 자신이 시를 짓는 것은 '시마(詩魔)'가 괴롭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다가, 후반부에서는 손바닥 부비며 혼자 웃다가 다시 시를 읊조려 본다고 노래하면서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렸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 짓기가 병일 정도로 자신이 시 짓기를 좋아한다는 점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반어적인 발상과 표현 방법을 통해 주제(중심 의미)를 구현하고 있는 것은 ⑤이다. 시적 화자는 '멋 훗날'이라는 미래의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시적 대상인 '당신'을 "잊었노라"라고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결코 잊을 수 없다'는 정서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잊었다는 사실의 확인이 아니라, 오히려 잊지 못하겠다는 심정을 강조한 반어적 표현인 것이다.

— 예술

[42~45] 지문 해제

모더니즘 건축의 기능주의를 비판한 장 누벨

기하학적 공간의 구성이 가장 기능적인 것이라고 본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장 누벨의 건축 미학에 대해 다룬 글이다. 장 누벨은 장식을 배제하고 기능만을 강조한 모더니즘 건축을 비판하는데, 그가 추구하는 것은 특이성의 미학이다. 그가 말하는 특이성은 개별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빚어내는 독특한 특징을 찾아 이를 구현하는 데서 발현된다.

장 누벨은 건축이 기능성과 물질적 요소에 제약될 경우 모더니즘 양식이 보여 주듯이 획일화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능성과 물질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비물질성을 건축의 테마로 삼았다. 또한, 그가 보여 주고자 한 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닌 사라짐의 미학이다. 이러한 사라짐의 미학을 위해서 그가 택한 건축적 장치는 '미장아빔'인데, 이는 공간을 심연의 공간, 즉 끝이 안 보이는 무한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장 누벨의 경우처럼, 해체주의 이후 건축 미학 분야에서 나타난 모더니즘과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주도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42. 글의 핵심 정보 이해를 통한 제목 생성 **정답 ⑤**

지문에서는 모더니즘 건축의 기능주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장 누벨의 건축 미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둘째 문단에서 장 누벨은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이 아닌 특이성의 미학이라고 언급한 다음, 셋째 문단 이후에서 모더니즘 건축과 대비되는 그의 입장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장 누벨의 입장은 '모더니즘 건축과 대비되는 새로운 건축의 한 경향'이라고 정리할 수 있으므로, 강연의 제목으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① 미래 건축이 나아갈 방향을 언급한 글이 아니라,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비판과 반성의 태도를 지닌 주도적인 흐름의 한 경향을 서술한 글이다.

②, ④ 카르티에 재단 건물의 구조적 특징이나 미장아빔은 장 누벨의 건축 미학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

③ 첫째 문단의 내용으로 볼 때, 근대적 공간론은 모더니즘 건축과 관련이 있다. 지문은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의 건축 미학에 대해 다룬 글이다.

43. 정보의 이해를 통한 추론의 타당성 파악 **정답 ⑤**

지문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모더니즘이 기능을 강조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기하학적 추상에 매몰되어 일상생활과 유리되어 기능적이지 못한 측면을 보여 주었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의 '모더니즘 건축'이 건축을 기능별로 구획한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건축과 일상생활이 밀착되는 도시를 추구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⑤의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모더니즘 건축의 미학과 대비되는 것이 특이성의 미학인데, 특이성은 다른 어떤 것과도 동질화되지 않는 차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셋째 문단의 '건축이 기능성과 물질적 요소에 제약될 경우 모더니즘 양식이 보여 주듯이 획일화'라는 내용으로 보아, 모더니즘 건축은 공간을 균질적인 공간으로 상정할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 문단의 '모더니즘이 기능을 강조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기하학적 추상에 매몰되어'라는 내용으로 보아, 모더니즘 건축은 공간을 추상적인 공간으로 상정할 것이라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② 둘째 문단에서 모더니즘 건축의 미학과 대비되는 특이성의 미학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이성은 ~ 개별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빚어내는 독특한 특징을 찾아 이를 구현하는 데서 발현된다.'라고 설명했다. 모더니즘 건축은 특이성의 미학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공간을 사물들에 대해 독립적이며 불변적인 것으로 볼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③ 첫째 문단에서 르코르뷔지에로 대표되는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언급한 '인체나 그리스 신전의 비례에서 유래한 기하학적인 공간의 구성'이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첫째 문단에서 모더니즘 건축과 관련하여 언급한 '이러한 건축의 이상은 근대적인 도시 계획으로, 또한 직육면체 형태의 국제적 양식으로 실현되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44. 정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①**

다섯째 문단에서 '미장아빔이란 공간을 심연의 공간, 즉 끝이 안 보이는 무한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거울을 마주보게 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볼 경우 자신의 이미지는 무한하게 소급된다.'라고 부연하여 설명했다. ㉡은 이러한 미장아빔의 효과를 카르티에 재단 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르티에 재단 건물에 대한 설명은 넷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는데, 미장아빔의 효과와 관련된 요소는 '(유리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표면에 비추어진 나무의 모습은 또다시 유리 스크린에 반사된 모습과 중첩한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결국 마주하는 두 개의 유리 스크린을 통해 무수한 이미지를 담아내는 것이므로, ㉡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①이다.

45. 정보의 분석을 통한 관점 및 견해의 이해 **정답 ④**

둘째 문단에서 '장 누벨은 장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기능만 강조한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고 하여 장 누벨의 견해를 ④처럼 '건축에 장식을 긴밀하게 활용함으로써 외관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문단에서, 장 누벨이 추구하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이 아닌 특이성의 미학'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런 다음 '특이성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어

울리면서 빚어내는 독특한 특징을 찾아 이를 구현하는 데서 발현된다.'라고 설명했다. ④의 '~ 외관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장 누벨의 견해와 거리가 멀다.

① 셋째 문단에서 장 누벨은 비물질성을 건축의 테마로 삼았다고 언급한 후, '비물질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어떤 이미지가 재현적 특징을 갖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③ 넷째 문단의 '장 누벨이 강조하듯이 이 건물은 관객의 시선을 유혹하는 어떤 미학적인 마력이 있는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판단할 수 있다.

– 현대소설

[46~50] 작품 해제

이청준, 「눈길」

이 작품은 어머니의 사랑과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는 아들 사이의 갈등과 그 갈등의 해소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고향에 대해 그리움과 함께 증오감을 갖고 있는 주인공 '나'는 어떤 일로 인해 고향을 방문하게 되고, 고향에서의 특수한 체험을 통해 '노인(어머니)'에 대한 심적 갈등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화해에 도달하게 된다.

이 소설은 형의 노름으로 인해 논밭과 집이 넘어간 집안에서 자수성가했다고 자부하는 아들인 '나', 집안의 불행이나 재앙을 자신의 덕 없음과 박복으로 돌리는 어머니인 '노인', 그리고 화해에 도달하도록 하는 매개 인물로서의 '아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에 빚을 지고 있음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 그러나 잠자리에서 '노인(어머니)'과 '아내'가 나누는 이야기(새벽 눈길을 걸어 아들을 배웅하고 다시 그 눈길을 되짚어 온 일)를 들으며, 그동안 외면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46. 소설 작품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이해 정답 ②

사건 및 상황 전개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제시된 장면에 드러난 '나'는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나'가 자신의 어머니를 '노인'으로 호칭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애써 외면해 왔던 심리적인 거리감을 드러내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ㄱ).

그리고 (중략) 부분 다음 장면을 보면, 어머니(노인)가 아들을 배웅하고 나서 눈길에 난 발자국을 따라 돌아오며 느꼈던 것들을 '아내'에게 말하고 있다. 이 장면을 보면, 집안이 몰락한 상황에서 새벽녘에 아들과 함께 걸었던 발자국을 되짚으며 돌아오면서 느꼈던 생각과 인상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ㄷ).

ㄴ. 제시된 장면의 전반부는 '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찾아왔을 때의 일을 서술한 내용이다. 그 당시의 상황을 '나'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추리 형식을 통해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중략) 부분 이후의 장면에서는 주로 '노인(어머니)'과 '아내'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인물이 추리하는 양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ㄹ. 직접 화법은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직접 되풀이하는 화법을 말하고, 간접 화법은 남의 말을 인용할 때, 현재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칭이나 시제 따위를 고쳐서 말하는 화법을 말한다. 제시된 장면은 서술자인 '나'의 생각, '노인'과 '아내'의 직접적인 대화 위주로 되어 있다. 간접 화법을 사용하여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양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47. 사건의 전개 양상 및 인물의 심리 이해 정답 ②

[B]에 등장하는 사물은 '옷궤'이다. 그런데 이 '옷궤'는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아들(나)의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머니(노인)가 매일 빈집을 드나들며 걸레질을 해 오면서 옛집 살림살이의 흔적으로 남겨 놓은 사물이다. 따라서 [B]의 '옷궤'는 아들을 배려하는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 혹은 집이 남에게 넘어감으로써 겪어야 했던 '나'의 아픈 기억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① '나중에야 안 일이었지만 노인은 거기서 마지막으로 내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당신과 하룻밤을 재워 보내고 싶어, ~'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집안이 몰락하여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집에서 아들(나)과 마지막 밤을 보낸 후 새벽녘에 아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면서, 어머니(노인)는 눈길에 나 있는 아들의 발자국을 보며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앞길을 간절히 빌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다.

④ '뜨거운 것'은 '나'가 '노인(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을 깨닫고, '노인(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에 대한 회한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다. 그리고 이 눈물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잠이 든 척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아내'에 대한 부끄러움도 엿볼 수 있다.

⑤ '아내'는 [C]에서 '노인'에게 그때 우시지 않으셨느냐고 말하면서 대답을 유도하고 있고, [D]에서는 '나'에게 이젠 좀 일어나서 말을 좀 해 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는 '나'가 '노인'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C]와 [D]를 종합해서 보면, '아내(그녀)'는 '노인'의 말에 점점 감정이 북받쳐서 울부짖음에 가까운 음성으로, 잠을 자는 척하는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다.

48. 작품 속 소재의 기능 및 의미에 대한 이해 정답 ⑤

제시된 장면으로 볼 때, '눈길'은 '나'에게는 집안이 몰락하여 새벽녘에 남몰래 집을 나서 걸어야 했던 부끄러움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 '눈길'이 '노인'에게는 집안이 몰락한 상황에서 아들을 배웅하고 혼자 걸어 돌아와야 했던 고통과 시련의 길이자, 아들의 대한 미안함과 걱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걸어야 했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불빛'은 과거에 걸었던 '눈길'에 대한 사연과 관련하여 '노인'과 '아내'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노인'의 말을 가로막고 싶은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나'가 '노인'의 애틋한 사랑을 깨닫고 미안함과 회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햇살'은 '노인'이 아들을 배웅하고 오는 상황에서 동네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몰락한 집안에 대해 느끼는 자책과 한스러움, 자식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제시된 장면에 나타나는 '눈길', '불빛', '햇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집안이 몰락한 상황에서 '노인'은 새벽녘에 아들을 배웅한 후 혼자 '눈길'을 걸어서 돌아오는데, 동네 근처에 와서는 '햇살'을 의식하면서 동네에 바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과 관련하여 접근할 때, '눈길'은 '햇살'로 연결되면서 몰락한 집안에서 혼자 겪어야 할 시련과 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불빛'은 '나'가 '노인'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은 부끄러움이나 반성의 차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몰락한 집안에 대한 아픈 기억이나 앞으로 겪어야 할 험난한 미래와는 거리가 멀다.

③ '나'의 '눈길'에 대한 기억은 '노인'의 말을 들은 후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어지면서, '불빛'과 연결되어 부끄러움과 반성의 심정으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불빛'을 '나'와 '노인'의 기억이 상반됨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노인'과 관련하여 이해할 때, '햇살'이 '나'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제시된 장면으로 볼 때, '노인'은 애초부터 '나'에 대해 어떤 거리감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9. 상황의 이해를 통한 이야기의 구조 분석 정답 ③

이야기 1에서 드러나는 '형'의 행적은 전답과 선산을 팔고 마침내는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팔아넘긴 사실이다. 그리고 이야기 2에는 K시에서 지내던 '나'가 이미 남에게 팔려 버린 집에 찾아와, '노인(어머니)'이 지어 준 저녁밥을 먹고 그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사연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야기 3에서는 '아내'와 '노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노인'이 새벽녘에 아들을 배웅하고 나서 혼자 눈길을 걸어 돌아오며 느꼈던 생각, 동네 근처에 도착하여 이제는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린 집의 지붕을 보며 느꼈던 생각 등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야기 1, 이야기 2, 이야기 3은 모두 당시에 이미 팔아 넘겨 남의 소유가 되어 버린 집이라는 공간에 얽힌 사연을 제시하여 구성의 긴밀함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③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① '형'의 술버릇 때문에 집안이 몰락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형'과 '노인'의 갈등 때문에 집안이 몰락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이야기 1과 이야기 2는 묘사를 중심으로 작중 상황을 드러냈다기보다는 서사 중심으로 작중 상황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묘사는 대상에서 받은 구체적 인상을 그림을 그려 내듯이 감각적으로 재현하는 글쓰기 방법을 말하고, 서사는 사물의 이동이나 변화 등을 시간적 추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글쓰기 방법을 말한다.

④ 이야기 3의 경우에는 '나'가 '아내'와 '노인'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수동적으로 듣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물들의 인식 차이를 보여 주기 위한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50. 단어의 문맥적 의미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①

㉠의 '사나워지다'는 '성질이나 행동이 모질고 억세게 되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다. 따라서 ㉠과 가장 의미가 가까운 것으로는 ①의 '성질이 사나워졌다.'이다.

② 생김새가 험하고 무섭게 되다.

③, ④ 상황이나 사정 따위가 순탄하지 못하고 나쁘게 되다.

⑤ 비, 바람 따위가 몹시 거칠고 심하게 되다.



수리 영역